

섬진강유역 장시의 공간구성과 기능 특성에 관한 연구

-순창·곡성·구례·옥곡장시를 중심으로-

Spatial Construction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Market Place in Seomjin River -Focused on Gokseong, Gurye, Soonchang, Okgok Market Place-

박 중 신* 김 태 영**
Park, Chung-Shin Kim, Tai-you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patial form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ket place in Seomjin river.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Gokseong, Gurye, Soonchang, and Okgok market pla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 of the traditional market that it was open focusing on large open space of a village was maintained until now. Second, the spatial form of a market place surrounds market-shop located at the center of a market, and a permanent market-store is located in a line. Spatial element important for constituting a market place is three, market-shop, stall, and the mall of market place, and each spatial element is functioning in linkage. The unit space of market-shop is mainly determined by between pillars, and a store is opened. And the same type of industry adjoins, and market-shop's forms a fixed domain and is distributed. The stall is located with many kinds and forms at street mall, and it is taking charge of the important function of trade.

키워드 : 전래장시, 장옥(場屋), 노점, 시장길, 기능적 특성

Keywords : Traditional Marketplace, Market-Shop, Stall, Street Mall, Functiona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시(場市)는 예로부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사람과 물건이 한 곳에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체제로서, 물물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15세기말, 전라도에서 흉황(凶荒)을 타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설¹⁾된 장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5일장으로 정착되면서 주요 하천의 수로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확대되었고, 수로에 인접하여 입지하는 소도읍(小都邑)의 장시들은 인근지역의 거점장시로서 시장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장시는 근대기에 이르러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제의 시장통제정책과 철도 부설의 두 가지 변동요소에 의해 크게 재편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도로망 확충에 의한 육로교통이 발전과 대형할인점이 등장하면서 시장세가 쇠락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의 5대 하천 중에서 섬진강에 인접하여 발전되었던 장시의 경우, 다른 지역의 장시보다 주거지 정비 및 개발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 당시 장시 주변의 가로

체계 및 주거지 구조는 지금도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주요 취급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장시공간구조의 연원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는 섬진강변에 인접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장시를 대상으로, 장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그 기능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섬진강 유역에 입지하는 순창, 곡성, 구례, 옥곡의 4개 주요 거점장시를 대상으로, 장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포의 배치·종류·형식, 업종분포, 그리고 집합형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시공간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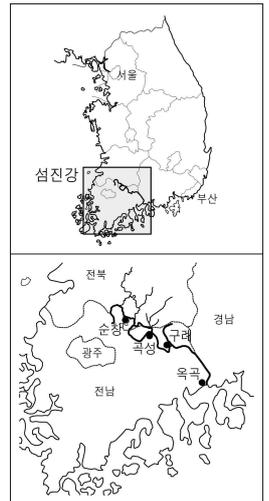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의 위치도

1)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최초의 시장은, 신라 소지왕 12년(490년)에 경주에 설치된 경시(京市)이다. 이러한 시전(市廛)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향시(鄕市)라는 정기시도 있었으나, 관리를 파견하여 감독하는 관설(官設)시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성종 1년(1470년)에 형성되었다고 기록된 전라도의 장문(場門)을 장시(場市)의 연원으로 보고자 한다.

* 정희원,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BK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기초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D00283)

연구대상으로 순창, 곡성, 구례, 옥곡장시의 4개소를 선정
한 이유로는, ① 입지별로 순창은 상류지역, 곡성 및 구
례는 중류지역, 옥곡은 하류지역에 입지한다는 점과 ②섬
진강의 수로체계상 주요 지류와 합류되는 지점에 입지한
다는 점, ③장시 개시일이 개설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
다는 점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2 조사개요

본 연구를 위하여 총 3차에 걸친 현지답사 및 실측조사
를 행하였다. 1차 조사는 예비조사로서, 지적도, 지형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조사함과 동시에 총 21개소의 장시
개시 현황과약을 위하여 2008년 1월 30일(수)~2월 2일
(토)에 현지를 답사하였다. 이어 선행연구 등의 자료수집
과 동시에 장시의 형성배경 및 성립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한 뒤, 2차 조사는 2008년 2월 12일(수)~16일(토)
에 순창, 곡성, 구례, 옥곡 장시를 대상으로 실측 및 히어
링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3차 조사로서, 2008년 2월 18
일(월)~22일(금)에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장시 배치도
및 점포 분포도를 작성하는 한편, 별도로 미비한 점에 대
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장시의 발달과 섬진강 유역 장시

2.1 장시의 발달과정과 수운

15세기말 전라도 장문(場門)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장시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정기시(定期市)의 형태로 발
전하게 되었다. 16세기 말에 이르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
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서는 교통과 집산(集散)의 결절지(結節地)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장시의 개시일
(開市日)이 조정되면서 흡수·통합·이설(移設) 등의 변화
를 겪게 되었고, 각 지방의 거점장시로 발달하면서 읍 규
모이상에는 객주(客主) 또는 여각(旅閣)이, 읍 규모이하의
읍과 읍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는 주막(酒幕) 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18세기 이후의 장시는 5일장
으로 통일되기 시작하였다. 즉, 장시 성립초기의 3일·5일
·10일·15일 간격의 개시일이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생
산시기, 운송 및 교통수단 등의 지역여건에 따라 5일장으
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세기 이후부터는
각 지방의 장시는 일정한 범위 내에 시장권(市場圈)을 형
성하여 대개 4~5개의 장시가 개시일을 달리하면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촌락 20~30
리 사이에는 1개소 이상의 장시가 열렸으며, 산간의 산림
·광산촌에서 연안과 내륙수로의 각 포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특히, 당시의 운송 및 교통수단의 여건 상, 수로(水路)
또는 수운(水運)을 기반으로 개시되는 장시가 그 거래 품
목 및 상업 규모에서 더욱 더 크게 발달하였다. 당시의 육

로는 짐을 실은 소나 말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산길이
대부분으로 지역마다 노폭(路幅)이 다르고, 노면(路面) 또
한 황토·자갈·모래·암석 등으로 수레의 이용이 요원
(遼遠)하였다. 따라서 원거리를 제외한 물류의 운송은 주
로 등짐을 이용한 상인(특히, 보부상)의 도보에 의해 이루
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에도 개선되지 않았
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당시 수운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항취락(河港聚落)의 장시는 수운의 운반능력 및 운송일
수²⁾와 직결되어 더욱 더 발달하게 되었고, 상업적 농업·
어업·임업·광산업 등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강 또는 하천으로 이루어진 수로의 수심이 최소한
1.4m이상 되어야 화물(貨物)을 실은 돛단배의 항행(航行)
이 가능한데, 내륙 깊숙이 이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는 수
운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한국의 5대 하천인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정도였다³⁾. 이들 5대 하천에 위치
하는 하항취락의 장시에는 강 하구(河口)로부터는 소금,
생선, 해산물 등이, 내륙으로부터는 쌀, 보리, 밀 등의 농
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산간지역으
로부터는 나무, 땀감 등의 천연자원 등이 집산(集散)되어,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물류의 운반과 더불어 나루터취
락(渡津聚落) 또한 발달하여, 수운을 이용한 일대 수로교
통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장시들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
상업 자본을 앞세운 열강들의 시장 확대투쟁이 본격화되
면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한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
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본은 점차 조선을 일본시장의 상
권 내에 포함시키려는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우리나
라를 원료생산지 및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1910년 12월, 조
선총독부는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을 발표함과 동시에
시장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시장규칙(市場規則, 1914
년)」을 제정함과 동시에 시장의 정비에 착수하여, 한반도
전역의 상설·정기 재래시장을 제1호 시장, 공설시장을 제
2호 시장, 어물·채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3호 시장으
로 각각 분류⁴⁾하였다. 이러한 일체의 시장통제정책은 전
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장시를 그들의 의도에 부합되도
록 시장기능을 합리화시키면서 식민지적 유통구조 속에
편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1897년부터 1942년에 걸친 철도부설⁵⁾은

2) 소나 말이 사람의 2~3배에 해당하는 짐을 나를 수 있는데 비해,
배는 약 1,000배에 해당하는 짐을 운반할 수 있었다. 운송일수
또한 산길을 통해 운송해야 했던 육로(陸路)에 비해 수로(水路)는
2~3배 빨랐다고 한다.

3) 당시, 5대 하천에서도 수량(水量) 많은 우기(雨期)를 제외하고, 강
의 상류까지 중선(中船)이상의 배가 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중류 인근에 위치하는 하항(河港)에서 소선(小船)으로 물
자를 옮겨 싣고 상류까지 운항(運航)하였다. 극히 운반 및 운수
(運輸)가 불편했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이 정도의 수운으로도 각
취락 및 장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4) 文定昌, 朝鮮의市場, 日本評論社, 1940, pp.198~206

기존의 시장질서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철도의 등장은 수운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고, 유통과 교통노선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그 전까지 수운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량의 화물과 사람의 운송이 철도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수운과 그 거점이었던 하항취락의 장시가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철도역과 수운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 하항취락의 장시는 반대로 더욱 더 그 입지성에 발판을 두고 번성하게 된다. 이러한 하항취락에는 철도역과 하항을 연결하는 협궤(狹軌) 열차가 부설되어 수운을 통해 집산된 각 지역의 생산물과 화물이 철도역까지 운반되었으며, 각 역에 운반된 화물은 철도를 통하여 전국 내륙도시로 운반되었다. 이러한 결과, 당시 기존의 하항취락에 위치하였던 장시가 철도역과 연계되어 새롭게 재편되었고, 근대적인 도시구조로 만들어진 앞 상점가와 더불어 병존, 경쟁하는 체제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2.2 섬진강 유역의 장시



그림 2.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섬진강 유역

섬진강⁶⁾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강으로 총 유역면적은 4,896.5 km²이다. 본류의 길이는 212.3km에 이르며,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서 발원하여, 전북 남동부(진안-임실-순창-남원)와 전남 북동부(곡성-순천-구례-광양), 그리고, 경남 남동부(하동)를 거쳐 광양만에 이르러 남해로 흐른다.

16세기부터 섬진강 유역은 전라 지역의 풍부한 곡창지대와 수리체계를 기반으로 초기형태의 장시가 발달하였으며, 주요 취급품목에 관

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면 벌꿀, 감, 석류, 유자, 김, 낙지, 송어, 농어, 미역, 은구어(銀口漁) 등 산물과 어패류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⁷⁾. 19세기 중반의 취급품목은 16세기의 토산물에 차류(茶類)와 머싯류 등의 재배 작물이 추가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취급품목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장시 입지상의 상·중·하류별로 주요 취급품목을 살펴보면, 상류(진안·

표 1. 섬진강 유역 장시의 시대별 개시일

권역	18세기(1770년)*	19세기(1830년)*	현재(2008년)**
상류	진안(鎭安) 呂內場(5·10) 馬靈場(3·8)	呂內場(5·10) 馬雲場(3·8) 東倉場(4·9)	진안(1·6) 성수(2·7) 용담, 동향, 마령(3·8) 안천, 무귀(4·9) 백운, 정천, 주천(5·10) 10개소
	임실(任實) 呂內場(1) 獨橋院場(6) 葛潭場(2·7) 良發里場(3·8) 鳥院場(4·9) 九阜場(5·10)	呂內場(1·6) 葛潭場(2·7) 良發場(2·7) 鳥院場(3·8) 屈岩場(1·6)	임실(1·6) 강진(2·7) 신평(3·8) 운암(4·9) 관촌(5·10) 5개소
	순창(淳昌) 呂內場(1·6) 燕山場(4·8) 三峙場(3·8) 綠沙場(5·10) 避老里場(2·7)	呂內場(1·6) 三支場(3·8)	순창(1·6) 개동(2·7) 홍곡(3·8) 구림(3·8) 쌍치(4·9) 5개소
	남원(南原) 呂內場(4·9) 橫灘場(1·6) 山洞場(5·10) 阿山場(3·8) 契樹場(2·7) 東花場(3·8)	府內場(4·9) 番巖場(1·6) 橫灘場(5·10) 山東場(2·7) 阿山場(3·8) 契樹場(2·7) 洞花場(3·8)	남원(4·9) 운암(1·6) 인월(3·8) 3개소
중류	곡성(谷城) 呂內場(3·8) 石谷場(5·10)	呂內場(3·8) 石谷場(5·10) 三岐場(1·6)	곡성(3·8) 죽곡(1·6) 임면(2·7) 옥과(4·9) 석곡(5·10) 5개소
	순천(順天) 府內場(2·7) 水營場(4·9) 防禦頭場(1·6) 石堡場(5·10) 海倉場(3·8) 捉馬亭場(3·8) 省生院場(4·9) 九萬場(5·10) 本谷場(1·6) 富有場(2·7) 富倉場(3·8) 白鵝場(4·9) 道古介場(3·8)	府內場(2·7) 松川場(3·8) 石堡場(5·10) 海倉場(4·9) 槐木場(4·9) 大谷場(3·8) 富倉場(2·7) 星山場(3·8)	용담(1·6) 순암(1·6) 광동(1·6) 남원(2·7) 안암(3·8) 구례(3·8) 양곡(3·8) 과목(4·9) 8개소
	구례(求禮) 呂內場(3·8)	城內場(3·8) 燕谷場(5·10)	구례(3·8) 광의(1·6) 산동(2·7) 3개소
	하류	豆置場(2·7) 花開場(1·6) 船橋場(5·10) 橫浦場(3·8) 辰橋場(3)	下豆治場(2) 上豆治場(7) 塔院場(1·6) 開時場(4·9) 舟橋場(5·10) 橫浦場(3·8) 辰橋場(3·8)
광양(光陽) 呂內場(1·6) 玉谷場(4·9)	呂內場(1·6) 玉谷場(4·9) 蟾居場(3·8) 月浦場(5·10)	광양(1·6) 옥곡(4·9) 진상(3·8) 3개소	
계	42개소	41개소	52개소

* 김용철(2004). 조선시대 섬진강유역의 장시를 참조하여 제작
** 산업통상부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제작

임실·순창)에 위치하는 장시에서는 주로, 미곡류(米穀類), 야채류, 과일류, 목류(木類), 옷감류, 자기류, 종이류 등이 주종을 이루며 어류와 해초류가 소수 분포하고, 중류(남원·곡성·순천·구례)의 경우에는 상류의 주요 품목과 재배류, 그리고 어물류(魚物類)가 고른 분포를 점하고 있으며, 하류(하동·광양)에는 주로 소금 및 어류·어패류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였다.

또한, 섬진강 유역의 장시에 관하여 개시일의 변천과정

- 한반도에 철도부설은 1897년부터 194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로 경인선 부설 후(1897~1900년), 경인철도주식회사는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경부철도주식회사에 매수되어 1901년부터 1903년에 걸쳐 경부선이 부설되었다. 1906년에는 경부철도주식회사와 임시군용철도감부(臨時軍用鐵道監部)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통합되어, 경의선 및 경전선(1906년), 호남선 및 경원선(1914년), 충북선(1929년), 장항선(1931년), 전라선(1936년), 중앙선(1942년)의 순서로 철도가 부설되었다.
- 본래 섬진강의 이름은 모래내, 다사강, 사수강, 사천, 두치강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 우왕 11년(1385)에 섬진강으로 부르게 되었다. 김용철, 조선시대 섬진강유역의 장시, 지역발전연구, 제10권, p.18
- 김용철, 위의 논문, p.44

표 2. 조사대상개요

No	장시명	개시일	위치	개설연도	대지면적(m ²)	장옥		노점개수(개)	주요 특산물
						갯수(개)	면적(m ²)		
1	순창장시	1·6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800, 800-2번지	1923년	16,406	130	3,623	100~200	마포(麻布), 고추, 용이 등
2	곡성장시	3·8	전남 곡성군 읍내리 130-19	1956년	6,019	106	1,506	80~120	농산물, 재배류, 공예품 등
3	구례장시	3·8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89-5외 5필지	1976년	16,500	119	3,127	60~100	오이, 작설차, 고추, 과일 등
4	옥곡장시	4·9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37-1외 4필지	1962년	5,461	59	1,054	40~60	고사리, 밥, 채소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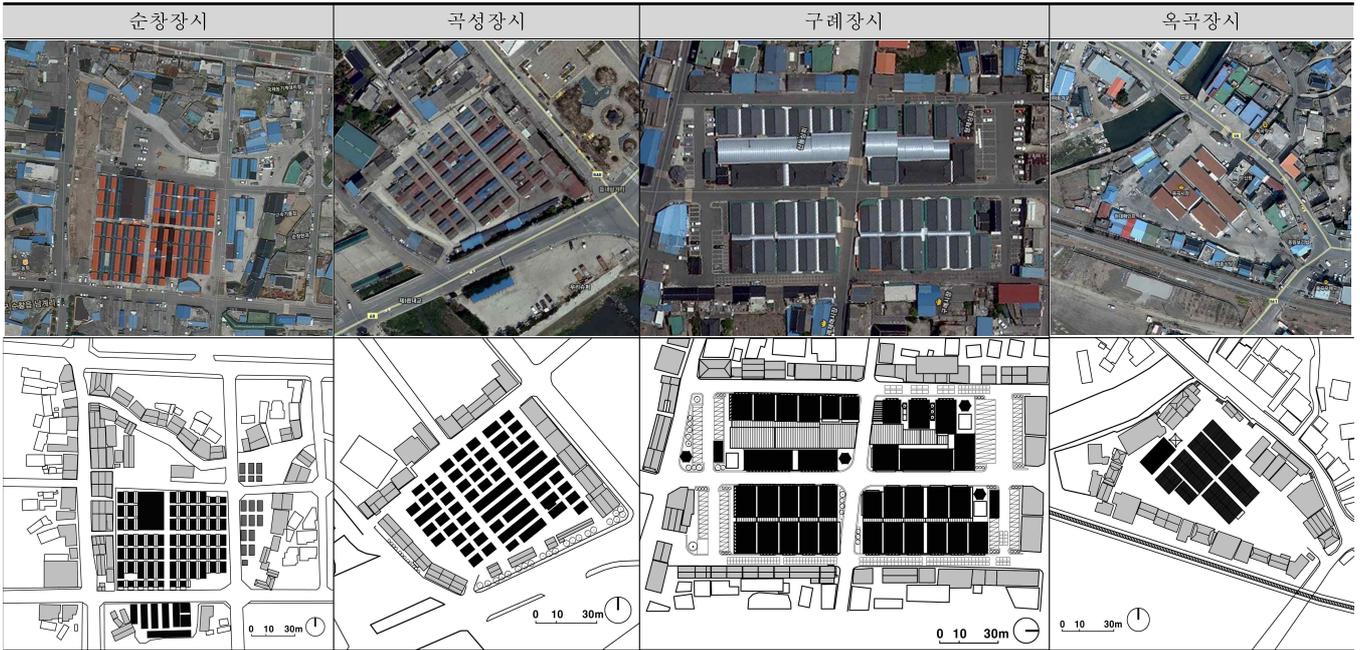


그림 3. 장시 현황배치도

을 18세기(1770년), 19세기(1830년), 그리고 현재(2008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개시일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6일 간격의 5일장 개시가 18세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세기에는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장시현황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점은, 상류(진안, 임실, 순창)의 장시는 그 개소가 대체로 감소한 반면, 중류부터 하류까지의 장시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읍치(邑治)의 거점장시를 중심으로 개시일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당시의 수리체계에서 추론해 볼 때 하천의 수량(水量)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중류와 하류의 장시가 더욱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지역별로 그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교통의 요충지나 하천 또는 포구를 이용한 수로, 토산물의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수로교통의 요지에는 장시가 반드시 개설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3. 장시현황 및 공간구성

3.1 장시개요 및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인 순창, 곡성, 구례,

옥곡장시는 섬진강에 인접하여 형성된 주요 거점장시로서 16세기 무렵부터 크게 발달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시장규칙에 의해 제1호 시장(상설·정기 재래시장)으로 편제되었으며, 1961년에 새롭게 제정된 시장법⁸⁾에 의해 허가를 얻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각 장시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

① 순창장시

현 위치의 순창 읍내장(1·6일)은 일제강점기 당시인 1923년에 개설되어 대지면적 33,412m²(10,107평)에 점포 130여개의 규모로 정비되었다. 당시의 주요 취급품목으로 쌀, 잡화, 철물, 용기, 생선, 마포, 채소 등의 생활필수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시장 한편에는 우시장도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시였다. 해방 후, 1965년에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정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순창장시의 현황으로는, 2008년에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 새롭게 장옥(場屋) 및 부대시설 등이 정비되어 대지면적 16,406m², 장옥 수 130개, 점포면적 3,623m²의 규모로 초기 개시일인 1일과 6일에 개시되고 있으며, 노점(이동상인)의 갯수는 100~200개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유명한

8) 시장법(법률 제 704호, 1961년 8월 14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는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또는 군수)은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업무규정 등의 신청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게 되었다.

특산품으로는 마포(麻布)와 고추이며, 장터 한쪽에 순대촌을 개설하여 장시의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곡성장시

곡성장시는 곡성 읍내장(3·8일)으로 출발하여, 1956년에 현재의 위치에 이설·정비되었다. 대지면적 6,019㎡에 장옥 106개, 점포면적 1,506㎡의 규모이며, 주요 취급품목으로 쌀, 보리, 사과, 감, 고구마 등의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예전부터 농산물 집산지로 유명하였다. 노점 갯수는 80~120개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유명한 특산품으로는 버섯류, 과일, 화훼, 채소류, 공예품 등이며, 시장 이용인구는 하루 평균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③ 구례장시

구례장시는 구례 읍내장(3·8일)에서 출발하여,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76년에 현재의 위치에 정비되었다. 대지면적 16,500㎡에 장옥 119개, 점포면적 3,127㎡, 노점 갯수 60~100개의 규모이며, 주요 취급품목으로 쌀, 밤, 오이, 산채류, 꿀, 버섯, 감, 은어 등 다양한 산물이 분포하고, 섬진강에 인접하여 비옥한 구례분지가 발달하여 예전부터 재배 작물지로서 유명하였다. 2007년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유명한 특산품으로는 오이, 작설차, 고추, 과일 등이다.

④ 옥곡장시

옥곡장시는 이 지역 전래 5일장이 인근의 장동리(장거리)에서 개시되다가 196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설되었다. 대지면적 5,461㎡, 장옥 59개, 점포면적 1,054㎡, 노점 갯수 40~60개의 규모이며, 옥곡면의 각종 토산물과 생활필수품의 거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고사리, 밤, 채소류 등이다.

3.2 장시배치 및 공간구성

섬진강 유역의 거점장시로서 순창, 곡성, 구례, 옥곡장시의 4개소를 대상으로, 상설점포, 장옥, 노점(露店), 부대시설 등의 배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장시공간의 구성적 특징을 도식화하면 [그림4]와 같다.

상설점포는 중앙의 장옥군의 외곽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며, 취급품목은 주로 철물점, 지업사, 이불가게, 문방구, 슈퍼 등의 생활용품점과 식당 및 반찬가게 등의 음식점, 정육점과 어물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점포 전면에 가판대를 덧대어 상품을 진열하는 등 점포영역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장옥은 기본적으로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간이 점포로서, 장시 중앙부에 열을 지어 나란히 배치된다. 최근 들어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새로 만들어진 장옥에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철제 셔터가 설치되어 장날이 아닌 때에는 이곳에 상품을 보관하는 등의 수장기능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장옥과 장옥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평·수직으로 약 3~5m의 시장길(또는, 통로)이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노점은 주로 장시 내의 주요 통로에 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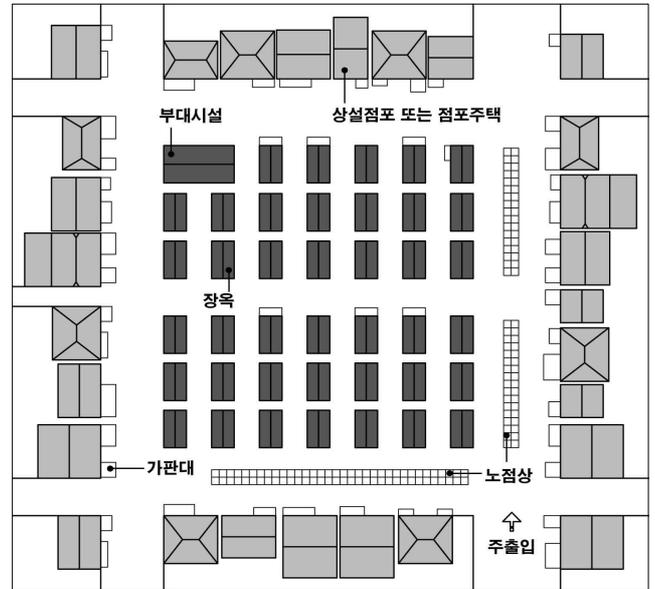


그림 4. 장시배치의 기본구성 개념도

가판 또는 다라를 설치하며, 상설점포와 장옥, 그리고 장옥과 장옥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종분포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적이다.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장터의 외곽부분 또는 단부에 주로 입지하며, 간이 화장실 및 쓰레기집하장 등이 분포하고 있다.

4개소의 장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①전래로부터 마을의 큰 마당을 중심으로 개시되던 장시형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②장옥과 상설점포, 그리고 장옥과 장옥사이에 격자형의 중·소규모 시장길을 배치함으로써 근대적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③노점을 시장길의 주요가로에 배치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장옥의 업종분포

장시를 구성함에 있어 상업행위의 중심역할로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요소는 광장 한 가운데 열을 지어 분포하는 장옥이라 말할 수 있다. 장옥은 장시의 개시일에만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장옥과 장옥사이에는 격자형으로 만들어진 시장길이 형성된다. 각 장시별로 빈 점포를 제외하고 장옥의 업종분포를 고찰하면 [그림5]와 [표3]과 같다.

순창과 구례의 경우에는 수산물(건어물 포함)과 곡물(과일 및 야채 포함)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에서는 수산물과 곡물을 합하면 전체 130개소 중 74개소를 점유하고 있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에는 주로 어물류가 남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곡물에서는 미곡류(米穀類)와 고추 등이 대부분으로 시장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례의 경우에는 곡물(약 20%)과 수산물(약 20%)에 이어 의류(10%)와 상회(10%)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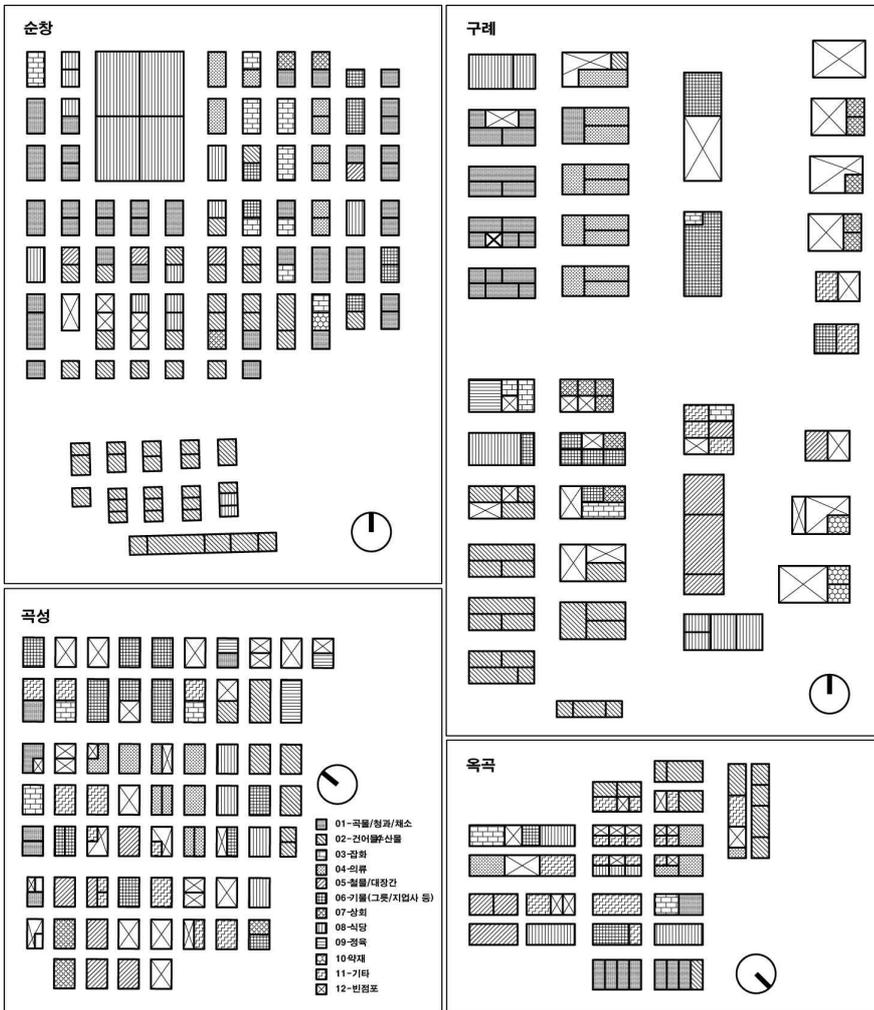


그림 5. 장육의 업종분포

고 있다. 곡물과 의류는 북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수산물은 남쪽에 주로 입지하며, 그리고 상회는 시장 중앙부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에서는 수산물이 남쪽에 집중적(약 20%)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기물과

표 3. 장육의 업종별 현황

업종분포	순창장시		곡성장시		구례장시		옥곡장시	
	개소*	Unit**	개소	Unit	개소	Unit	개소	Unit
01 곡물/청과/채소	43	45	8	13	20	32	8	18
02 건어물/수산물	44	49	24	24	19	40	8	26
03 잡화	8	12	4	8	8	10	2	7
04 의류	9	11	9	25	12	25	7	11
05 철물/대장간	3	3	5	20	5	15	3	16
06 기물(그릇, 지업사 등)	5	9	9	34	9	28	2	6
07 상회/슈퍼	0	0	7	10	11	11	0	0
08 식당	12	17	4	16	7	26	3	6
09 정육	0	0	4	10	1	8	0	0
10 약재	1	1	0	0	2	3	0	0
11 기타(창고 등)	0	0	7	71	4	3	12	15
12 빈점포(휴업, 폐업 등)	5	6	25	70	21	64	14	17
합계	130	153	106	301	119	265	59	122

* 점포의 개수

** 점포의 단위공간(Unit) 개수로서, 하나의 장육 안에서 기둥을 중심으로 2~6개의 점포로 구획되는 단위공간

철물은 각각 북쪽과 서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옥곡에서는 창고 등의 기타시설(약

20%)과 수산물(약 15%), 그리고 곡물(약 15%)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주로 서쪽에 분포하며, 곡물은 시장 입구인 북동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장시별로 업종의 분포에 초점을 두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일반적으로, 곡물과 수산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점, ②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업종은 서로 인접하여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며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 ③ 최근 들어 휴점 및 폐점 등으로 인해 빈 점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의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인 동일한 업종의 집중적 분포는 전래의 우리 장시문화에서 미곡전(米穀塵), 어물전(魚物塵), 목포전(木布塵), 유철전(鑰鐵塵), 지혜전(紙鞋塵) 등의 일정품목의 분포 및 입지성 등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까지도 전래의 장시문화가 유지·계승되고 있는 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육의 물적 특성과 노점 및 시장길의 공간구조

일반적으로, 전래장시의 점포는 마을의 공터나 주도로에 인접한 기존의 주택 앞에 가설천막을 설치함으로써 구성되었다. 또한, 가설천막 주위에 노점이 들어섰으며, 천막과 노점을 따라 일정한 시장길이 형성되었다. 한편, 근대기 이후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시일마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는 천막대신 목재의 기둥과 지붕구조를 가진 상설의 간이점포가 필요하게 되면서 장터에 장육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점은 상품진열을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의 포대자루, 다라 등이 접이식 가판대 또는 합판⁹⁾ 등으로 교체¹⁰⁾되면서 장터 주도로의 중앙부에 길게 늘어 서서 시장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장육과 노점의 공간적·물리적 형태는 장시의 주된 경관요소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장육의 물적 특성과 노점 및 시장길의 공간적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9) 가판대로 사용되는 합판 하부에는 일정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양동이, 플라스틱케이스, 스티로폼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10) 현재도, 소규모의 노점에는 포대자루, 다라 등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 관련 노점의 경우에는 세수대야와 다라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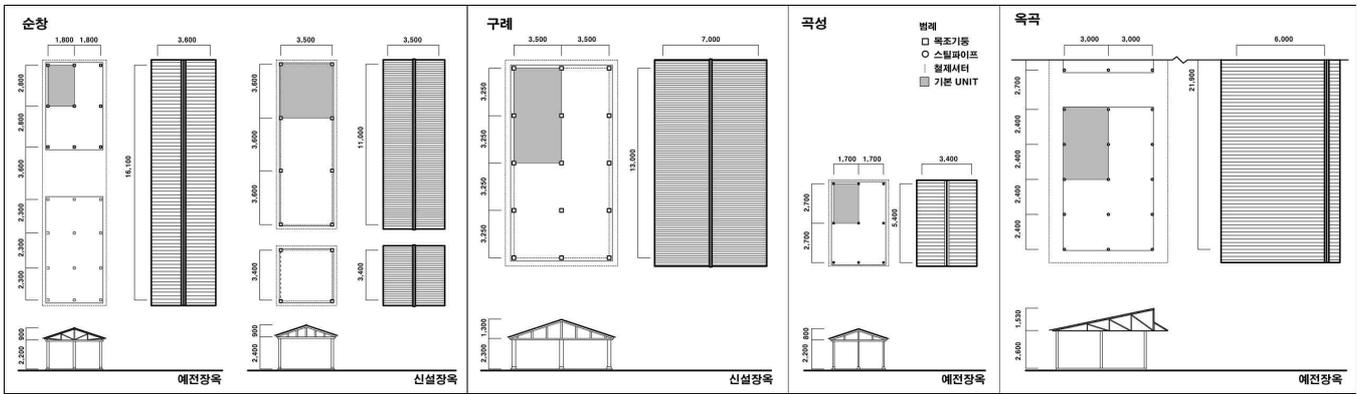


그림 6. 장시별 장옥의 물적 현황 및 단위공간(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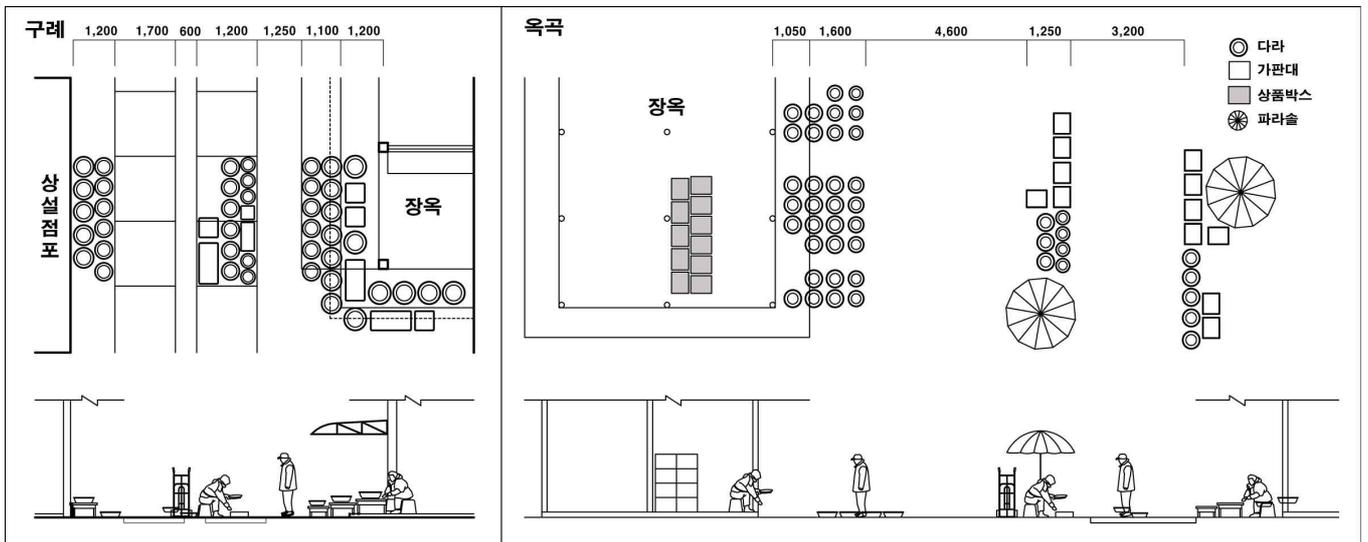


그림 7. 노점 및 시장길의 공간구성(구례와 옥곡장시의 어물전 사례)

4.1 장옥의 물적 현황 및 점포의 단위공간

장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목재의 기둥 4~8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맞배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중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스틸파이프 또는 목재의 기둥 15~30개 내외를 세우고 그 위에 경량 트러스를 설치하여 경사지붕 또는 맞배지붕으로 만들었다. 지붕재료를 살펴보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은 슬레이트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아연도금 합석판, 또는 시멘트기와로 만들어졌다. 평면은 한 변이 긴 장방형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치수의 표준형을 기본으로 장터의 크기에 맞게 다소 치수를 조정된 것도 만들어졌다. 장옥의 물리적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한 후, 주간(柱間) 모듈에 초점을 두고 점포의 최소단위공간을 분석해 보면 [그림6]과 같다.

순창의 장옥은 어물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예전장옥이 남아있고, 북쪽으로는 신설된 장옥이 나란히 남아있어 그 공간·형태적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 예전장옥의 경우, 단변은 2칸¹¹⁾(1.8m/칸)으로 구성되

었고, 장변은 2칸(2.4m/칸) 또는 3칸(2.3m/칸)으로 구성되며, 점포 최소 단위공간(UNIT)의 크기는 1.8×2.4m(또는 2.3m)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붕에 두 개의 장옥을 구성하였고, 장옥과 장옥사이에는 3.6m의 통로를 설정하였다. 한편, 신설장옥의 경우에는 단변을 1칸(3.5m/칸)으로 설정하고 장변을 1칸~3칸(3.6m)으로 구성하였다. 점포 최소단위공간의 모듈은 주간 모듈과 동일한 1칸(3.5m)×1칸(3.6m)로서 예전장옥의 두 배에 해당하는 폭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단변의 폭은 예전 장옥의 폭을 참고로 하여 이와 비슷하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설장옥의 천정고를 다소 높여 예전장옥에 비해 약 0.2m 높게 만들어졌다.

구례의 경우에는 장옥이 신설되면서 주간 모듈이 매우 넓게 만들어졌다. 주간 모듈은 3.25×3.5m로 구성되며, 장옥 한 동의 크기는 장변 4칸(13m)×단변 2칸(7m)로 만들어졌다. 최소단위공간은 2칸(장변 6.5m)×1칸(단변 3.5m)으로 장옥 한 동 내에 4개의 점포가 입지한다.

곡성에서는 주간 모듈은 2.7×1.7m로서, 장옥 한 동의 크

11) 척관법 단위로 살펴보면, 1척(尺)은 30.3cm로 0.9m는 약 3척, 1.8m는 약 6척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신축된 장옥의

경우, 1.7m 또는 3.5m 등의 현대적 모듈이 나타나는 관계로 미터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는 장변 2칸(5.4m)×단변 2칸(3.4m)로 만들어졌다. 기본 단위공간의 구성은 순창의 예전장옥과 비슷하게 주간모듈 1칸에 점포 1개로 기획 가능하며, 한 동의 장옥에 4개의 점포가 구성된다.

옥곡의 장옥은 대규모로서, 한 동의 장옥에 8개의 점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전체크기는 장변 8칸(중앙통로 2.7m 포함하여 21.9m)×단변 2칸(6m)로 구성되었으며, 주간 모듈은 2.4×3.0m로 구성되었다. 점포의 기본단위공간은 장변 2칸(4.8m)×단변(3.0m)로 구성되었다.

4.2 노점 및 시장길의 공간적 특징

장옥과 더불어, 노점 및 시장길은 장시공간 내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노점은 시장길의 활기와 매출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공간요소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점의 입지는 장시의 주요도로에 연하여 입지하나, 업종 및 형태는 각 장시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정해진 방식도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장 내에 동종의 집중적인 업종분포를 보이는 구례와 옥곡의 어물전을 대상으로 노점(또는 상설점포)과 시장길의 물리적인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그림7]과 같다. 구례와 옥곡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구례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진 후 노점의 입지를 정확히 계획하여 정하고 있으며, 옥곡의 경우에는 목측과 구전에 의해 입지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의 비교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구례의 어물전을 살펴보면, 주로 생선류와 건어물을 취급하는 상설점포와 장옥사이에 만들어진 시장길에 연하여, 비슷한 업종인 어패류, 해초류, 건어물류가 주류를 이루면서 입지하고 있었다. 노점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약 8.75m의 시장길 내에 1.7×1.7m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된 장소에 일정하게 입지하며, 상설점포를 등지고 장옥을 마주하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설점포와 장옥사이의 시장길은 가운데 노점이 입지하면서 하나의 시장길이 2개의 시장길로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형성되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설점포 또한 시장길 쪽으로 가판대를 1.2m정도 덧내어 점포와 노점사이는 약 2.4m, 장옥 또한 가판대를 캐노피만큼 덧내어 노점과 장옥사이의 약 1.2m의 시장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노점의 입지가 정확히 정해지고 있지 않는 옥곡의 경우에는 장옥과 노점, 노점과 노점사이의 간격이 각각 약 4.5m와 3m정도로 다소 넓으며, 정해진 계획이 없어서 편리한대로 그때마다 상인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옥의 내부는 상품의 진열 및 판매의 기능이라기보다 주로 판매 물품을 쌓아두는 보관용도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하면, 노점은 주로 시장길을 사이에 두고 인근하는 상설점포와 장옥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이 대부분 입지하

며, 하나의 시장길을 두 갈래의 시장길로 이용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요소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섬진강 유역 순창, 구례, 곡성, 옥곡장시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장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그 기능특성을 밝혀낸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래로부터 마을의 큰 마당을 중심으로 개시되던 전통적 장시형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상설점포가 장시 중앙부의 장옥군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요소는 장옥, 노점, 시장길의 세 가지로 파악되며, 각각의 공간요소에 의해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장옥의 점포단위공간은 주로 주간(기둥간격)에 의해 형성되며, 업종에 따라 복수의 단위공간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시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업종은 서로 인접하여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며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넷째, 노점은 시장길의 주요가로에 다중·다양한 형태로 입지하면서 소비자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유역에 인접하여 형성된 장시들은 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고른 분포가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장시는 대부분 소도읍 거점장시로서 인근지역의 소규모 장시의 양상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장시공간구조를 밝혀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며, 추후 좀 더 치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성훈, 한국의 정기시장-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 이재하·홍순완, 한국의 장시-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1992
3. 善生永助, 朝鮮의市場, 조선총독부조사자료 제8집, 1924
4. 김용철, 조선시대 섬진강유역의 장시, 지역발전연구(서강정보대), 제10권, 2004
5. 朝鮮總督府, 朝鮮의市場經濟, 龍溪書舍, 2001
6. 朝鮮總督府, 朝鮮의市場, 龍溪書舍, 1996
7. 강만길, 한국상업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접수: 2010.01.10, 심사완료: 2010.2.16)